中國語文學 第61輯(2012.12) 159-190쪽

家訓을 통해 본 中古시기 士人들의 修身과 處世*

權 赫 錫**

<目 次>

Ⅰ. 시작하는 말
Ⅱ. 中古시기 家訓의 내용
1. 修身
2. 齊家
3. 處世
Ⅲ. 中古시기 家訓의 특징
Ⅳ. 끝내는 말

Ⅰ. 시작하는 말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다. 가정이 화목하게 제대로 영위되는 이른바 "齊家"는 제대로 된 사회 및 국가의 토대가 된다. 그렇기에 "齊家"의 한 방편이 되는 가훈은 좁게는 가정, 가문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넓게는 한 나라의 안녕의 달성이란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가훈은 개인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자제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한 진정성이 충만한 교훈적인 글로서, 그런 이유만으로도 후인들의 삶에 귀감이 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가훈을 시대와 결부시켜 볼 때, 잦은 동란, 생명상실의 보편화, 가족의 이산과 해체, 그로 인한 가문의 단절 등이 상대적으로 심했던 시대에는 가훈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고찰의 시대범위를 중고시기, 즉 동한 말부터 위진남북조

* 이 연구는 2012년도 한국교통대학교 교내학술과제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함.
** 한국교통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www.kci.go.kr

까지로 잡고, 이 시기 가훈에 나타난 수신과 처세 태도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그것을 통해 중고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수신과 처세관 및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 中古시기 家訓의 내용

> 가훈은 곧 어떤 한 가정 또는 가족 중 부조의 자손에 대한, 형의 동생에 대한, 남편의 아내에 대한 모종의 훈시이자 가르침으로, 그 내용은 가르치는 사람이 스스로 제정한 것도 있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조상의 유언이나 族規, 族訓, 俗訓 또는 鄕約 등의 문헌에서 관련이 있는 항목을 뽑은 것일 수 있으며, 어떤 것은 권유적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떤 것은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떤 것은 양자의 의미를 다 담고 있을 수 있다.[1)]

가훈을 간단히 정의하면 가정[가족] 내에서 부형 등의 손윗사람이 자제 등 손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동한 말부터 "위진남북조 시기는 또한 난세기다. 그 사이에 군웅이 할거하고, 오호가 중화를 어지럽혔고, 남북이 대치하며, 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왕권이 빈번하게 교체되어 사회는 요동치며 불안하기 그지없었으며, 각종의 가치와 관념들이 충돌을 일으켰다.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관학이 폐지되고 사학이 흥성하였으며, 유일한 경학교육은 깨어지고, 유학, 현학, 불교, 도교 등이 병존하며 우열을 다투던 국면이었다. 동란의 사회, 암흑의 정치에 사인들은 명철보신을 꽤하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자손들로 하여금 안신입명하고, 건공입업하게 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2)]

중고[3)]시기라고도 하는 이 시기의 특징 중의 하나로 연속된 동란으로 인

1) 朱明勳, ≪中國家訓史論考≫, 成都, 巴蜀書社, 2008.4. 初版, 10쪽.
2) 王學, <中國古代家訓的價值取向初探>, ≪湖南師範大學教育科學學報≫, 2005.1, 4:1, 66쪽.
3) 劉師培의 ≪中國中古文學史講義≫ 이후, 습관적으로 東漢 말에서 唐 이전까지의 역사 단계를 중고시기라고 한다. 王瑤, ≪中古文學史論≫, 長安出版

www.kci.go.kr

한 왕조의 잦은 교체를 들 수 있다. 이는 당시 지식인들로 하여금 나라보다 가정을 더 중하게 여기게 하는 가족 중심사고를 형성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가족, 가계 중심의 사고는 자연스럽게 가계의 영속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였으며,[4] 그에 따라 가문의 부형된 자들은 자제들에게 가계의 영속을 위해 나름대로 깨달은 처방전을 내렸으니, 이와 같은 시대배경으로 인해 가훈의 수요가 급증하게 된 것이다.

본고의 고찰 범위인 중고시기 가훈을 대략적 시대순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5]

東漢 馬援(전14~49) <誡兄子嚴敦書>, 樊宏(?~51) <戒子>, 鄭玄(127~200) <戒子益恩書>, 杜泰姬(?) <戒諸女及婦書>, 蔡邕(132~192) <女誡>, 司馬徽(?~208) <誡子書>, 張紘(153~220) <臨困授子靖留箋>, 三國 曹操(155~220) <戒子植>, 劉廙(180~221) <戒弟緯>, 向朗(168~247) <遺言戒子>, 諸葛亮(181~234) <誡子書>와 <誡外生>, 王昶(?~259) <戒兄子及子書>, 王祥(185~269) <訓子孫遺令>, 羊祜(221~278) <誡子書>, 王修(?) <誡子書>, 西晉 李秉(?) <家戒>, 嵇康(223~262) <家誡>, 西涼 李暠(351~417)[6]

社, 1982.8, 再版, 自序 1쪽. 胡大雷, ≪中古詩人抒情方式的演進≫, 中華書局, 2003.6, 序. 본고에서는 편의상 동한시기부터 隋나라 전까지를 고찰범위로 삼았다.

4) 이는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史書에도 반영되었는데, 즉 사서 중에 충의전이 없으며, 대신에 효행과 관련된 항목이 개설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宋書≫와 ≪南齊書≫, ≪南史≫ 및 북조의 사서인 ≪周書≫에는 충의와 관련된 항목 대신에 <孝義> 항목이 있으며, ≪梁書≫, ≪陳書≫에도 충의 관련 항목 대신에 <孝行> 항목이 있으며, 북조의 사서인 ≪魏書≫에는 <孝感>과 <節義>, ≪北史≫에는 <孝行>과 <節義>가 차례로 배열되어 있다. 단 예외적으로 ≪晉書≫에 <孝友>와 <忠義>가 차례로 배열되어 있다. 그런데 이후 사서인 ≪舊唐書≫와 ≪新唐書≫, ≪宋史≫ 등에는 모두 <忠義>와 <孝友>가 차례로 배열되어 있으며, <忠義>의 분량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上海書店 編, ≪二十五史≫(全12冊), 上海古籍出版社, 1992.8, 第9刷.

5) 王新龍 編著, ≪中華家訓≫(全4冊) 등 참고문헌에서 밝힌 책에서 수집한 것이다.

6) 李暠: 字가 玄盛이며, 隴西 成紀(지금의 甘肅 靜寧) 사람이다. 아버지 李昶의 유복자로서, 오호십육국 당시 西涼을 세운 사람이다. 스스로 西漢 장군 李廣

www.kci.go.kr

<手令戒諸子>, 東晉 陶淵明(365~427) <命子>, <與子儼等疏>와 <責子>, 宋 顔延之(384~456) <庭誥>, 北魏 源賀(407~479) <遺令敕諸子>, 南齊 王僧虔(426~485) <誡子書>, 北魏 楊椿(455~531) <誡子孫>, 南齊 蕭嶷(?) <誡諸子>와 <臨終誡子>, 梁 徐勉(466~535) <誡子崧書>, 蕭綱(503~551) <誡當陽公大心書>, 後魏 張氏(?) <誡諸子>, 北齊 顔之推(531~590) ≪顔氏家訓≫

가훈에 담긴 가르침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본고는 중고시기 가훈에 나타난 다양한 내용을 수신, 제가, 처세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범위 구분의 기준을 가정으로 정하고, 개인에서부터 가정 내에 이르기까지는 수신으로, 가정 바깥의 일은 처세라는 항목에 포함시켜 구분을 단순화하였으며, 수신은 처세의 전제가 되고, 처세는 수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1. 修身

개인적으로 훌륭한 품성을 닦는 것, 이는 시대와 무관하게 인간으로서 갖춰야할 기본적인 의무다. 전통적으로 수신은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토대로 간주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신은 입신양명의 출발이기도 하며, 그것은 가문의 명예, 또는 가문의 성쇠와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1) 입지의 원대함

입지라 함은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삶의 목표가 자잘하거나 불확실하다면 그 삶 자체가 보잘것없거나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동한의 鄭玄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장차 군자의 도리를 힘써 추구하며, 열심히 수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

의 후예라고 하였으며, 唐朝의 李氏의 선조이다.

www.kci.go.kr

고, 행동거지를 공경하고 삼가서 덕이 있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도록 하거라. 높은 명예는 동료와 친구들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덕행이란 자신의 의지를 통해 이루어지느니라.(其勖求君子之道, 研鑽勿替, 敬愼威儀, 以近有德. 顯譽成於僚友, 德行立於己志.)

이상적인 인격상인 군자의 도리를 추구하는 것이 고대 사인들의 수신의 목표였다. 군자의 도리란 타고난 덕성을 닦는 것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굳건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군자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삶, 타고난 착한 덕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흔들림 없는 의지가 필요하며, 그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덕 있는 사람과 가까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삼국시대 諸葛亮은 아들과 생질에게 준 <誡子書>와 <誡外生>에서 입지의 중요성 및 수신, 면학 등과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후자를 보기로 한다.

무릇 뜻은 높고 원대한 것에 두어야 한다. 선현을 흠모하고 사사로운 감정과 욕심을 끊고 뜻을 가로막는 장애를 내버려라. 그래서 배워서 인재가 되겠다는 뜻이 가슴에 확실하게 심어지게 하고 비장하게 느껴지도록 하라. 치욕을 인내하고 사소한 잡념을 버리고, 널리 자문을 구하고 시기와 인색함을 없애도록 하라. 그러면 비록 오래도록 뜻을 얻지 못한들 어찌 자신의 아름다운 취향에 손해가 될 것이며, 어찌 일이 안 된다고 근심하랴? 만약 의지가 굳세지 못하고 기개롭지 못하면 그저 하찮게 세속에 얽매이고 끽소리 못 내고 감정에 구속되어 영원히 평범함에 빠지게 되니 시정잡배가 되는 것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夫志當存高遠, 慕先賢, 絕情欲, 棄疑滯. 使庶幾之志揭然有所存, 惻然有所感. 忍屈伸, 去細碎, 廣咨問, 除嫌吝, 雖有淹留, 何損於美趣, 何患於不濟. 若志不強毅, 意氣不慷慨, 徒碌碌滯於俗, 默默束於情, 永窴伏不庸, 不免於下流.)

인생의 원대한 목표를 굳건하게 설정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평범한 시정잡배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諸葛亮의 두 가훈을 보면 입신에 대한

www.kci.go.kr

그의 기본적 생각은 원대한 의지를 굳건히 세워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顔之推 역시 자식을 가르칠 때는 시류에 얽매이지 말고 입지를 원대하게 갖도록 가르치라고 하면서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제나라의 한 사대부가 자식에게 선비어와 비파를 가르쳐 선비족의 나라인 北齊에서 벼슬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7)]

이와 같이 중고시기의 가훈에는 기본적으로 인생[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입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 덕성의 함양

인생, 삶의 목표 설정이 이루졌다면 다음으로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노력은 우선 개인의 내재적 덕성의 함양에서부터 시작되어 외재적인 지식의 습득으로 나아가야 한다.

덕성의 가장 으뜸은 착한 품성이다. 사람이 타고난 착한 품성을 닦아서 밝히는 게 우선이다. 삼국시대 오나라의 姚信은 자식을 훈계하는 글 ≪诫子≫를 통해 욕심을 버리고 남을 위하는 착한 덕성을 닦도록 가르치고 있다.

> 옛 사람들이 선을 행한 것은 명예를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며, 남에게 영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 스스로 선행을 좋아하며 그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곤경과 편안함에 처했을 때를 막론하고, 모두 착한 덕성을 훼손하지 않았으며, 시종일관 한결같았던 것이다. 나아가면 신령의 뜻에 맞고, 물러나면 사람의 도리와 같았다. …… 만약 허위를 버리고 착한 덕성을 따르고, 자신의 아집을 버리고 남의 덕성을 관찰하면 세상에 통할 수 있다. 자기[이기주의]를 버리고 남들[을 생각하는 마음]에게 나아간다면 막힘을 버리고 통달로 나아가 자신을 크게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지위의 귀천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 초래하는 것이다. 착하다면 필부의 자식도 왕공이 될 수 있으며, 착하지

7) 顔之推 著, 임동석 역주, ≪안씨가훈・교자≫, 고즈윈, 2004, 47쪽.

www.kci.go.kr

않다면 왕공의 자식도 오히려 필부가 될 것이다.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古人行善者, 非名之務, 非人之爲, 心自甘之, 以爲己度, 阨易不虧, 始終如一. 進合神契, 退同人道. …… 舍僞從善, 遣己察人, 可以通矣. 舍己就人, 去否適泰可以弘矣. 貴賤無常, 唯人所速. 苟善, 則匹夫之子可至王公. 苟不善, 則王公之子反爲凡庶. 可不勉哉!)

착한 품성을 닦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천성의 회복을 통해 자연스럽게 착한 품성을 지니게 되면 사람은 물론 신령에게도 부합된다고 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착한 품성은 이기심을 버린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착한 품성의 배양 여부는 심하게는 필부의 자식도 왕공이 될 수 있게 하고, 왕공의 자식도 필부가 되게 만든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수신 및 집안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덕목인 검약을 가르치고 있는 가훈을 보기로 하겠다. 검약함은 욕심과 그로 인한 사치의 절제이다.

북위 楊椿은 은퇴할 무렵,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誡子孫>이란 글을 지어 검소하게 살 것을 당부하였다. 그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선대의 구체적 예를 드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청하옹 때의 복식은 기억하는데, 옹께서 항상 삼베옷에 갈대띠를 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항상 여러 삼촌들에게 약속하며 가르치시기를, "너희들은 후세에 지금보다 더 부귀하게 되더라도 제발 한 근의 금이나 백 필 이상의 채색비단은 쌓아두지 말고 그것을 부유함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또 생계를 도모하면서 이익을 강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또 세도가의 집안과 혼인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다.(然記淸河翁時服飾. 恒見翁著布衣韋帶, 常約敕諸父曰, "汝等後世脫若富貴於今日者, 愼勿積金一斤, 彩帛百匹已上, 用爲富也." 又不聽治生求利, 又不聽與勢家作婚姻.)

여기에서 청하옹은 바로 양준의 조부인 楊眞을 가리킨다. 검약은 이익

www.kci.go.kr

추구와 상반된다. 관리로서는 청렴의 덕성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부의 축적에 한도를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청렴은 관직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덕목이다. 그러나 막상 관직에 있다 보면 재물에 대한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게 되는데, 그리하여 마침내는 애써 닦은 고상한 인품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梁나라 徐勉은 <誡子崧書>에서 자식에게 다음과 같이 청렴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 우리집은 대대로 청렴하였으며, 그래서 늘 가난하게 살았다. ……옛사람이 말했다. '청렴의 덕성을 자손에게 남겨주는 것은 또한 훌륭하지 않은가!' 또 말하기를 '자식에게 황금을 가득 남겨주느니 차라리 경전 한 권을 남겨주는 게 낫다.'라고 했다. 이 말을 자세히 음미해보면 실로 헛된 말이 아니다. 내 비록 똑똑하지 못하지만 실로 근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니, 바라건대 이 의미를 잘 준수하면서 실추시키지 말았으면 한다.(吾家世清廉, 故常居貧素. ……古人所謂 "以清白遺子孫, 不亦厚乎!" 又雲, "遺子黃金滿, 不如一經." 詳求此言, 信非徒語. 吾雖不敏, 實有本志, 庶得遵奉斯義, 不敢墜失.)

자식들에게 청렴의 덕성을 남겨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고인들의 말씀을 빌어 가르치고 있다. 황금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보다 경전 한 권을 남겨주는 게 청렴의 덕성을 가르치는 것이기에 더 낫다고 하였다.

청렴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魏나라 王昶은 조카와 자식을 훈계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명예와 이익에 대한 욕심을 버릴 것을 강조하였다.

> 사람들이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날 줄 모르며, 욕심낼 줄만 알았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곤란과 욕을 당하는 폐단과 회한의 탄식이 생기는 것을 걱정한다. 이런 말이 있다. "만족을 모르면 탐욕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만족함을 아는 만족은 항상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일의 성패를 살펴보고, 미래의 길흉을 관찰하면 일찍이 명예를 추구하고 이익을 도모하며,

www.kci.go.kr

> 욕심내는 것에 물리지 않으면서도 세대와 가문을 보전하며 오래도록 복록을 완전히 누리는 자는 없었다.(患人知進而不知退, 知欲而不知足, 故有困辱之累, 悔吝之咎. 語曰, “如不知足, 則失所欲.” 故知足之足常足矣. 覽往事之成敗, 察將來之吉凶, 未有幹名要利, 欲而不厭, 而能保世持家, 永全福祿者也.)

부귀와 명성에 대한 욕심은 청렴의 덕을 손상시킨다. 그것은 세대와 가문의 보전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으니 가훈에서 가르치는 수신의 주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3) 독서와 면학

독서와 면학은 수신 또는 양명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論語≫의 주제 역시 공부의 즐거움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孔子는 공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8] 속언에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讀書, 起家之本)이라고 했으니, 가훈의 내용에 독서의 중요성이 언급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죽을 때까지 전장을 누비던 蜀의 승상 諸葛亮 역시 아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엄격했다.

> 무릇 배움이란 고요해야 하며, 재주는 배워야만 하는데, 배우지 않으면 재주를 넓힐 수가 없고, 의지가 없으면 배움을 이룰 수가 없다.(夫學須靜也, 才須學也, 非學無以廣才, 非志無以成學.)

학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태만하면 정진할 수 없고, 조급하면 성정을 도야할 수 없다.”(淫慢則不能勵精, 險躁則不能治性.)라고 했다. 나아가 그렇지 못하면 결국에는 “나이는 시간과 더불어 쏜살같이 달려가고, 의지는 세월과 함께 사라져가 마침내 고목처럼 말라버려 대부분 세상에 나설 수가

8) <學而>: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述而>: “學而不厭.”, <衛靈公>: “吾嘗終日不食, 終夜不寢, 以思, 無益,不如學也.”

www.kci.go.kr

없게 되어, 슬프게 가난한 오두막집이나 지키고 있게 되니 장차 다시금 무슨 일을 하겠는가?"(年與時馳, 意與日去, 遂成枯落, 多不接世, 悲守窮廬, 將複何及!)라고 훈계했다.

남조 梁나라 簡文帝 蕭綱은 아들에게 준 <誡當陽公大心書>란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너의 나이 아직 어려, 부족한 부분은 배워야 한다. 오래 갈 수 있고 크게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학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孔子가 말하기를 "나는 일찍이 종일토록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자지 않으며 사고하였지만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배우는 것만 못했다"라고 하였다. 담장을 보고 서 있는 듯한 처지[9]와 원숭이가 모자를 쓴 듯한 태도[10]는 내가 취하지 않는 것이다.(汝年時尙幼, 所缺者學, 可久可大, 其唯學歟! 所以孔丘言, 吾嘗終日不食, 終夜不寢, 以思, 無益, 不如學也. 若使牆面而立, 沐猴而冠, 吾所不取.)

배우지 않고서는 세상에 나설 수 없음을 말하였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공자와 같은 성인들의 깨달음이라고 하였다.

드물게 어머니의 입장에서 자식의 면학을 독려하는 가훈으로서, 後魏 張氏는 <誡諸子>에서 다음과 같이 자식들을 깨우쳤다.

> 내가 너희 집에 시집온 이래로, 아직까지 네 아비가 하루도 책을 읽지 않은 모습을 보지 못했으니, 너희들도 마땅히 각각 부지런히 노력하여 선대의 업적을 중단시키지 마라.(自我爲汝家婦, 未見汝父一日不讀書, 汝等宜

9) ≪論語・陽貨≫: "孔子가 伯魚에게 말하기를 '너는 <周南>과 <召南>을 공부했느냐? 사람으로서 <주남>, <소남>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는 마치 담장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라고 했다."(子謂伯魚曰, "女爲周南召南矣乎? 人而不爲周南召南, 其猶正牆面而立也與?") 朱熹가 이를 풀이하여 말하기를 "말하자면 아주 가까운 곳이지만 하나도 보이지 않으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言即其至近之地, 而一物無所見, 一步不可行.)라고 했다. 朱熹 注, ≪四書集注≫, 北京古籍出版社, 2000, 194쪽.

10) 원숭이가 모자를 썼다는 것은 사람의 형상을 갖추었으나 사람의 모습이 없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www.kci.go.kr

各修勤, 勿替先業.)

장씨는 바로 후위의 高謙之의 처다. 고겸지는 자가 道讓이며, 일찍이 縣令을 역임하였고, 재주가 뛰어났기 때문에 추천을 통해 國子博士에 임명되었다.[11] 장씨의 자식을 가르치는 방식은 지극히 단순하다. 즉 그녀가 제시한 모델은 경전 속의 어떤 위인이 아니라 바로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의 가르침은 경전 속의 그 어떤 가르침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가르침의 결과를 보면 장씨의 가르침이 훌륭했음을 알 수 있는데, 사서에 따르면, 그들 부부에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높은 벼슬을 하여 입신양명을 이루었다고 한다.[12]

남조 齊 王僧虔은 <誡子書>에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훈계하고 있다.

> 조상의 음덕을 잃은 후에는 어떻게 용과 호랑이란 이름을 얻을 수 있을까. 하물며 나는 너희들에게 음덕을 끼칠 능력도 없으니, 마땅히 각기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 자신이 삼공을 역임했지만 조용히 명성이 드러나지 않기도 하고, 벼슬도 없이 가난하지만 공경재상이 몸을 굽힌다. 때로는 父子의 귀천이 서로 다르고, 형제의 명성이 각기 다른데, 왜 그럴까. 몸소 백 권의 책을 읽었을 따름이다. 나는 지금 후회해도 어쩔 수가 없으니, 경험자로서 후인에게 훈계하고자 한다.(失蔭之後, 豈龍虎之議? 況

11) ≪魏書≫列傳第六十五<高崇傳>: "인사와는 담을 쌓은 채 오로지 경사의 책에만 뜻을 두었으며, 천문역법, 도참과 위서 등을 대부분 섭렵하였고, 하루에 수천 마디씩 외웠으며, 문장을 좋아하되 뜻은 ≪노자≫와 ≪주역≫에 두었었다."(屛絶人事, 專意經史, 天文算曆、圖緯之書, 多所該涉, 日誦數千言, 好文章, 留意老易.) 上海書店 編, 앞의 책, ≪魏書≫, 198쪽.

12) 장자인 子儒는 자가 孝禮이며, 처음에는 秘書郎中이 되었다가 通直郎으로 옮겼으며, 후에는 安東將軍, 光祿大夫, 司徒中兵參軍兼祭酒, 殿中侍禦史 등을 역임했다. 둘째 子緖는 자가 叔宗이며, 총명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여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항상 "우리 문중을 일으킬 아이는 당연히 이 아이다."라고 자랑했다고 하며 후에 司空行參軍, 長流參軍, 鎭遠將軍, 冀州儀同府中兵參軍 등을 역임했다. 셋째 孝貞은 司徒士曹參軍을 역임했으며, 넷째 孝幹은 司空東合祭酒를 역임했다. 上海書店 編, 앞의 책,≪魏書≫, 199쪽 참조.

www.kci.go.kr

吾不能爲汝蔭, 政應各自努力耳. 或有身經三公, 蔑爾無聞, 布衣寒素, 卿相屈體. 或父子貴賤殊, 兄弟聲名異, 何也? 體盡讀數百卷書耳. 吾今悔無所及, 欲以前車誡爾後乘也.)

가문의 번창은 고문세족도 의지할 만한 게 못되고, 반드시 자제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의지해야 한다고 했다. 인품과 신분의 고하는 결국 독서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중고시기를 살았던 지식인들은 비록 난세기였지만 자식에 대한 독서와 면학은 더욱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살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2. 齊家

중고시기는 왕조의 잦은 교체와 끊임없는 전란으로 인해 가족의 중요성이 두드러진 시기였다. 난세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정윤리의 강화와 그를 통한 가족구성원의 화목함을 확보하여 가족의 응집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더욱 필요했던 것이다.

(1) 효도

효는 고대 중국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품덕 중의 하나로, 백행의 근본이자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덕목이었다. 효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체를 다치지 않는 데서 시작하여 후세에 이름을 날려 부모를 높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다.[13]

13) ≪孝經·開宗明義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무릇 효라는 것은 덕의 근본이요, 교육의 실마리이다. 다시 앉거라. 내 너에게 말하겠다. 신체발부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감히 손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며, 입신하여 도리를 행하고 후세에 이름을 날려서 부모를 높이는 것이 효의 끝이다.'"(子曰, "夫孝, 德之本也, 敎之所由生也. 復坐, 吾語汝.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 汪受寬 譯注, ≪孝經譯注≫, 上海古籍出版社, 2007, 1쪽.

www.kci.go.kr

魏 王昶은 <戒兄子及子書>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효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무릇 사람으로서 자식된 도리를 행함에 있어서 몸을 보배처럼 아끼고 품행을 완미하게 하여 부모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은 좋다는 것은 알지만 간혹 몸을 위태롭게 하고 집안을 망쳐서 결국 멸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은 왜일까. 그 도리를 떠받들며 익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릇 孝敬과 인의는 백행의 으뜸으로, 그것을 행하며 자립하는 것이 수신의 근본이다. 효도하고 공경하면 친족들이 그를 편안하게 여길 것이며, 어질고 의로우면 고을 사람들이 그를 중하게 여길 것이니, 이는 행실은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이름은 외부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夫人爲子之道, 莫大於寶身全行, 以顯父母. 此三者人知其善, 而或危身破家, 陷於滅亡之禍者, 何也? 由所祖習非其道也. 夫孝敬仁義, 百行之首, 行之而立, 身之本也. 孝敬則宗族安之, 仁義則鄕黨重之, 此行成於內, 名著於外者矣.)

자식된 도리로서의 효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즉 경전에서처럼 우선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신의 몸을 아껴서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요, 다음으로 사회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감에 행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요,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통해 부모의 이름을 높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효는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행동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부모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을 효라고 하겠다. 이에 양나라 徐勉은 <誡子崧書>에서 아들에게 청렴하게 살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경전의 말을 인용하여 조상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효라고 하였다.

> ≪中庸≫에 일컫기를 "무릇 효라는 것은 조상의 뜻을 잘 계승하며, 조상의 일을 잘 이어가는 것이다."라고 했다. 지금 바람은 네가 나의 이러한 뜻을 잘 지켜서 내가 한스러움이 없는 것이다.(≪記≫雲, "夫孝者, 善繼人之志, 善述人之事." 今且望汝全吾此志, 則無所恨矣.)

www.kci.go.kr

司馬遷이 아버지 말씀을 받들어 아버지가 못다한 일인 ≪史記≫의 저술을 완성하였듯,[14] 부모의 말씀을 잘 받드는 것, 나아가 부모가 하고자 했던 일을 잘 계승하는 것이 효라고 했다.

송 顔延之는 <庭誥>에서 효성과 자애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는 자식의 효성을 바란다면 우선 자신의 자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 아들이 효성스럽기를 바란다면 먼저 자애로워라. ……비록 효도란 자애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애란 본래 효도를 심는 것이다. ……자애와 효도가 상생관계이며 감정과 도리가 상생관계인 것을 안다면 집집마다 曾子, 高柴 같은 효자가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모두 子路나 閔損 같은 효자가 될 것이다.(欲求子孝, 必先慈. ……雖孝不待慈, 而慈固植孝, ……儻知恩意相生, 情理相出, 可使家有參柴, 人皆由損.)

중고시기의 가훈에 언급된 효는 대부분 효도하라는 직접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가계를 훌륭히 보전하라는 간접적 가르침이라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전면적인 언급이 많지 않은 대신, 대부분 다른 덕성을 언급할 때 함께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봉건적 가부장제에서 불효의 예가 형제간의 불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2) 우애

우애란 효도와 함께 가정의 화목함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덕목이다. 가계의 영속을 바라는 부형된 입장에서 자제에게 가르침을 주는 가훈에서는 당연히 수직관계상의 효도보다도 수평관계상의 우애가 더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슬하의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고 서로 반목과 질시, 다툼에 빠진다면 자신의 사후 가계의 보전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4) 司馬談(?~전110)의 <命子遷>. 王人恩 編著, ≪古代家訓精華≫, 甘肅敎育出版社, 2001, 5-6쪽.

www.kci.go.kr

지극한 효성으로 유명한 위나라 王祥은 죽음에 임하여 자식들에게 자세한 상례 절차를 일러주면서 자식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준칙을 말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형제간의 우애였다.[15]

陶淵明은 <與子儼等疏>에서 구체적 예를 들면서 형제의 우애를 강조했다.

> 그러나 너희들은 비록 같은 어머니가 낳지는 않았으나 마땅히 온 세상 사람이 다 형제라는 이치를 생각해야 한다. 鮑叔과 管仲은 재물을 나눌 때 시기함이 없었고, 歸生과 伍擧는 가시나무 가지를 깔고 앉아 옛 정을 이야기하였다. 결국 실패했던 관중은 성공을 하게 되었고, 도망가던 오거도 돌아와 공을 세우게 되었다. 남들 사이도 오히려 이렇게 하거늘, 하물며 아버지가 같은 너희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潁川의 韓元長은 한나라 말의 유명한 선비로 卿左라는 높은 관직에 있다가 80세에 죽었는데, 형제들이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았다. 濟北의 氾稚春은 晉나라의 지조 높은 사람으로 7대에 걸쳐 재산을 함께 공유했으나 집안사람들이 원망하는 기색이 없었다.(然汝等雖不同生, 當思四海皆兄弟之義. 鮑叔管仲, 分財無猜, 歸生伍擧, 班荊道舊. 遂能以敗爲成, 因喪立功. 他人尙爾, 況同父之人哉! 潁川韓元長, 漢末名士, 身處卿佐, 八十而終. 兄弟同居, 至於沒齒. 濟北氾稚春, 晉時操行人也, 七世同財, 家人無怨色.)

부형된 입장에서는 가계가 존속되고 번창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겠는가. 가계의 존속과 번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계의 구성원, 즉 가족의 화목이 중요하다. 가족 중에서도 형제의 불화는 가정의 화목을 깨는 가장 큰 요인이다.

북위 楊椿은 <誡子孫>에서 자식들에게 자기 세대의 우애를 예로 들면서 형제가 화목하게 지내기를 간절하게 바랐다.

> 또한 우리 형제들은 집에 있을 때는 반드시 한 쟁반의 음식을 같이 먹

15) <訓子孫遺令>: "형제가 화목하며 가족 모두가 즐거워함은 지극한 우애이다."(兄弟怡怡, 宗族欣欣, 悌之至也.)

www.kci.go.kr

었으며, 가까운 곳에 출타하였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기다렸고, 또 때가 지나도 먹지 않으며 배고픔을 참고 기다렸다. 또 우리 형제들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따로 살지 않으며, 재산을 따로 관리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 헛된 거짓이 아닐 것이다.(又吾兄弟若在家, 必同盤而食. 若有近行不至, 必待其還, 亦有過中不食, 忍饑相待. 吾兄弟八人, 今存者有三, 是故不忍別食也. 又願畢吾兄弟世不異居異財. 汝等眼見, 非爲虛假.)

자기 세대 형제들의 지극한 우애를 실례로 들어 자식들을 가르치고 있다. 형제가 다 모일 때까지 배고픔을 참고 기다렸다가 식사를 함께 하는 일, 분가하지 않고 한집에 살면서 재산을 공유하는 일, 그것은 완벽한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완벽한 공동체를 이뤄 화목하게 살아나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중고시기 가훈의 주요 내용이었다.

顔之推는 형제간의 우애의 중요성에 대해 '兄弟'라는 한 장을 할애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다른 가훈에 비해 두드러지는 점은 형제간의 우애가 결혼으로 인한 각각의 처에 의해 변질된다든가 동서간에는 불화가 일기 쉽다는 속성에 대한 인식은 당시로서는 독특하다.

중고시기는 난세라는 시대적 특수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가훈이 나라의 안녕보다는 가문의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때문에 조만간 없어질 나라를 위해 자식이 절개를 지키며 자신을 희생시키는 일은 부모의 입장에서 용납될 수 없었다. 이러한 태도는 일신의 처세와 가문의 유지에는 긍정적 의미를 지니지만 사회와 공공을 위한 봉사와 희생이란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대개의 경우 수신과 제가에 치중한 반면, 치국과 평천하라는 보다 큰 공적인 목표는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난세라는 시대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www.kci.go.kr

3. 處世

(1) 언행과 교유의 신중함

신중함이란 수신과 관련된 덕목이자 세상에 처신하는 도리이기도 하다. 신중한 품성을 양성함이 우선이며, 이로써 세상에 처신함이 화를 면하는 상책이 된다. 신중함은 자신의 언행에 적용되는 덕목이기도 하고, 교유에 적용되는 덕목이기도 하다. 자신의 언행을 신중히 함으로써 화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과 교유하는 사람을 신중히 선택하여 자신의 덕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화를 당하기 쉬운 난세에는 특히 신중함이 강조되었다.

'신중함'은 고대 중국, 특히 유가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품덕 중의 하나다. 예를 들면 ≪禮記·祭義≫에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자신의 몸을 신중하게 움직여야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했다고 할 수 있다[16]라고 한 것, ≪左傳·襄公25年≫에 "일의 시작을 신중히 하고 끝을 공경히 하면 끝까지 곤경에 처하지 않는다."(愼始而敬終, 終以不困.)[17]라고 한 것, ≪詩經·小雅·巷伯≫에 "네 말을 신중히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愼爾言也, 謂爾不信.)[18]라고 한 것, ≪周易·坤卦≫에 "자루를 꼭 묶으면 허물이 없다는 것은 신중히 하면 해를 입지 않는다는 뜻이다."(括囊無垢, 愼不害也.)라고 한 것, ≪周易·頤卦≫에도 "때문에 군자는 언어를 신중히 하고, 음식을 절제한다."(君子以信言語, 節飮食.)[19]라고 한 것 등이다. 이는 중고시기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가훈에 반영되었다.

동한 馬援은 조카들에게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신중한 경우와

16)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자신의 몸을 신중히 행동하여 부모에게 나쁜 이름을 남기지 않아야 효도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父母旣沒愼行其身, 不遺父母惡名, 可謂能終矣!) (日) 竹內照夫 著, 新釋漢文大系28, ≪禮記≫(中), 明治書院, 719쪽.

17) 楊伯峻 著, ≪春秋左傳注≫(下), 源流文化事業公司, 1982, 1109쪽.

18) 祝敏徹 等 譯注, ≪詩經譯注≫, 甘肅人民出版社, 1984, 459쪽.

19) 黃壽祺 等 撰, ≪周易譯注≫(修訂本), 上海古籍出版社, 2001, 228쪽.

www.kci.go.kr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시켜 알아듣기 쉽도록 훈계하고 있는데, 즉 龍伯高란 사람은 “돈후하고 신중하여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겸손하고 절제하며 청렴하고 위엄이 있어, 내가 그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니 너희들은 이를 본받기 바란다.”(龍伯高敦厚周愼, 口無擇言, 謙約節儉, 廉公有威. 吾愛之重之, 願汝曹效之.)라고 하였다.

羊祜는 <誡子書>에서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재능이 부족해 보이는 자식들에게 입지와 처신에 있어서 여러모로 충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중함을 더욱 강조하면서 부족한 재능을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랐다.

> 공손함은 덕성의 근본이며, 삼감은 행동의 기초가 되니, 원하건대 너희들은 말을 하되 충심에서 나와서 진실해야 하며, 행동하되 독실하고 공경스러워야 하며, 입으로 남에게 재물을 가지고 약속하지 말며, 겪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남에게 전하지 말며, 비방하거나 칭찬하는 말을 듣지 말도록 하라. 남의 과실을 들으면 귀로는 들을 수 있지만 입으로 퍼뜨려서는 안 되며, 깊이 생각한 후 행동하라. 만약 언행에 신뢰가 없다면 자신이 큰 질책을 받게 되고, 나아가 자연히 형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어찌 또한 너희들을 불쌍하게 여기겠는가. 부끄러움이 조상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恭爲德首, 愼爲行基. 願汝等言則忠信, 行則篤敬. 無口許人以財, 無傳不經之談, 無聽毁譽之語. 聞人之過, 耳可得受, 口不得宣, 思而後動. 若言行無信, 身受大謗, 自入刑論, 豈復惜汝, 恥及祖考.)

경솔한 언행의 폐해는 자신으로 하여금 법의 심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치욕이 조상들에게까지 미치게 되니, 매사에 삼가고 또 삼갈 것을 유념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嵇康은 <家誡>에서 자제들에게 언어의 신중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 무릇 언어는 군자의 처세의 관건이다. 관건이 움직이면 사물이 호응하고, 이에 시비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니 삼가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의미가 명료하지 않는데도 제 생각을 말하고자 할 때는 마땅히 명료하지 않은 잘

www.kci.go.kr

못이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며, 잠시 참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夫言語, 君子之機, 機動物應, 則是非之形著矣. 故不可不愼. 若於意不善了, 而本意欲言, 則當懼有不了之失, 且權忍之.)

언어의 신중함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막상 자신의 삶을 보면 그 가르침과는 전혀 맞지가 않았다. <與山巨源絶交書>[20] 중에서 그는 자신이 阮籍의 "입으로는 남의 잘못을 따지지 않는다."(口不論人過)라는 말을 매우 좋아하는데, "매번 그것을 배우고자 해도 그렇게 되지 못했다."(每師之而未能及)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해석하여 말하기를, "타고난 천성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 외물과의 접촉에도 다치게 하려는 마음이 없기"(至性過人, 與物無傷.) 때문이라고 했으며, 심지어 "강직한 기질로 남을 미워하고, 가볍게 바른말을 함부로 하여, 곤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剛腸疾惡, 輕肆直言, 遇事便發.) 끝내는 생명도 망치게 하였으니, 자제들을 가르친 "말을 삼가는"(愼言) 삶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를 언행의 불일치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은 알면서도 끝내 고치지 못했지만 자식들만큼은 자신의 전철을 밟지 말고, 언어를 신중히 하여 화를 입지 않기를 바랐던 것으로 볼 수 있다.

西晉 李秉 역시 언행과 처세의 신중함에 대해 실례를 들어 가르치고 있다. 그가 쓴 <家戒>[21]를 보면 다음과 같다.

또 하문하셨다. "어쩔 수 없어서 버린다면 이 세 가지[청렴, 신중, 근면] 중 무엇을 먼저 버리겠는가?" 어떤 사람이 대답하였다. "청렴은 확실히 근본입니다." 다음으로 재차 나에게 하문하시어 내가 대답하였다. "청렴하고

20) 明 張溥 編, 앞의 책, 文津出版社, 1979, 1357-1360쪽.

21) ≪三國志·魏書·李通傳≫(裴氏注): "晉나라 王隱의 ≪晉書≫에 의하면, (李通의 아들) 李緖의 아들은 李秉으로, 자가 玄胄이며 뛰어난 재주가 있어서 당시에 귀하게 여겨졌으며, 벼슬이 秦州刺史에 이르렀다. 李秉은 일찍이 司馬文王의 물음에 답하였는데, 그것으로 인해 <家誡>를 지었다."(王隱≪晉書≫曰, 緖子秉, 字玄胄, 有俊才, 爲時所貴, 官至秦州刺史. 秉嘗答司馬文王問, 因以爲<家誡>.) 陳壽 撰, 宋 裴松之 注, ≪三國志≫(上), 嶽麓書社, 1990, 431쪽.

www.kci.go.kr

신중한 도리는 서로 의지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부득이하다면 신중함이 중대합니다. 무릇 청렴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신중하지는 않지만, 신중한 사람은 반드시 저절로 청렴하니, 이는 또한 어진 사람은 반드시 용기가 있지만 용감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어질지는 않다는 것과 같습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신중한 사람은 아마도 阮嗣宗이 아니겠는가. 매번 그와 말하면, 말이 까마득히 요원한 데까지 이르면서도 일찍이 시사를 평론하거나 인물을 품평한 적은 없었으니, 정말로 최고의 신중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늘 이 말을 생각하면 또한 밝은 경계로 삼기에 충분하였다. 무릇 사람이 일을 함에 젊어서 입신함에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으니, 가벼이 사람을 평론하지 말고, 가벼이 세상일을 말하지 말라. 이와 같이 한다면 회환이 무엇으로 생기겠으며, 재앙과 환난이 어디로부터 오겠는가?(上又問曰, "必不得已, 於斯三者何先?" 或對曰, "淸固爲本." 次復問吾, 對曰, "淸愼之道, 相須而成, 必不得已, 愼乃爲大. 夫淸者不必愼, 愼者必自淸, 亦由仁者必有勇, 勇者不必有仁. ……" 上曰, "……然天下之至愼者, 其惟阮嗣宗乎! 每與之言, 言及玄遠, 而未曾評論時事, 臧否人物, 眞可謂至愼矣." 吾每思此言, 亦足以爲明誡. 凡人行事, 年少立身, 不可不愼, 勿輕論人, 勿輕說事, 如此則悔吝何由而生, 禍患無從而至矣.)

이 가훈은 크게 두 가지로 신중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관리로서 지켜야할 세 가지 덕목으로 청렴, 신중, 근면을 들면서 그 중에서도 신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당시 관리로서 신중함을 가장 잘 갖춘 사람으로 阮籍을 들면서, 阮籍의 신중함에 대해 시사에 대한 평론과 인물에 대한 품평을 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최고의 신중함이란 바로 가볍게 사람을 평가한다든가 세상사를 입에 올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시사나 인물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했다면 그 사람, 또는 그 일과 관련된 사람에게 원한을 사게 될 것이고, 반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 그 반대편의 사람에게 또한 원한을 사게 될 것이니, 재앙과 환난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위 楊椿은 <誡子孫>에서 그 자제들에게 언어의 신중함에 대해 자신의

www.kci.go.kr

경우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북쪽 수도[22]에 있을 때 나라의 법이 엄혹하였는데, 태화[23] 초에 우리 형제 세 명은 모두 궁중의 내직에 있었다. 형님은 高祖의 좌우에 있었고, 나와 동생 楊津은 文明太后의 좌우에 있었는데, 당시 태후가 조령을 내려 여러 내관들에게 책임을 지웠는데, 10일마다 한 가지 일을 비밀리에 보고토록 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크게 성을 내고 미워하였다. 여러 사람들 중에는 칙령에 따라 비밀리에 보고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태후와 고조 사이에서 말을 전하면서 이간질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 형제들은 서로 훈계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외람되이 임금과 태후의 근신의 자리에 있는데, 모자 사이가 매우 어려운 지경이니 마땅히 깊이 조심해야 한다. 또한 인사를 기술함에 있어서도 어찌 쉽겠는가? 설령 노여움과 질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삼가며 말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태화 21년에 내가 濟州에서 궁중으로 들어와 임금님을 배알했을 때, 청휘당에서 연회를 가졌는데, 고조께서 여러 제후와 귀족들에게 말했다. "북도에 있을 때 태후께서 엄격하시고 명철하시어 나는 늘 매를 맞았는데, 좌우 신하들이 이 때문에 시비의 말이 있게 되었다. 우리 모자를 화목하게 한 사람은 오직 양춘 형제뿐이었다." 마침내 우리 네 형제와 나에게 술잔을 들어 술을 하사하셨다. 너희들은 만일 임금의 알아주는 은혜와 대우를 받게 된다면 마땅히 말을 깊이 생각하고 삼가야 하지, 가벼이 사람들의 나쁜 점을 거론해서는 안 된다.(北都時, 朝法嚴急. 太和初, 吾兄弟三人並居內職, 兄在高祖左右, 吾與津在文明太後左右. 於時口敕責諸內官, 十日仰密得一事, 不列便大嗔嫌. 諸人多有依敕密列者, 亦有太後、高祖中間傳言構間者. 吾兄弟自相誡曰, "今忝二聖近臣, 母子間甚難, 宜深愼之. 又列人事, 亦何容易, 縱被嗔責, 愼勿輕言." …… 太和二十一年, 吾從濟州來朝, 在淸徽堂豫宴. 高祖謂諸王諸貴曰, "北京之日, 太後嚴明, 吾每得杖, 左右因此是有非言語. 和朕母子者, 唯楊椿兄弟." 遂擧賜四兄及我酒. 汝等脫若萬一蒙時主知遇, 宜深愼言語, 不可輕論人惡也.)

---

22) 北都: 西晉 말 선비족인 拓跋猗盧가 盛樂城을 축성하여 북도로 삼았는데, 옛터가 지금의 내몽고 和林格爾 서남쪽 토성이다. 북도에 있을 때란 바로 서진 말을 가리킨다.

23) 太和: 北魏 孝文帝 元宏의 연호(477~499).

www.kci.go.kr

楊春 형제가 조정에 있을 때의 북위의 정세는 文明太后가 수렴청정할 때로서, 그 10여 년 기간 동안에 문명태후는 관원들에게 조칙을 내려 반드시 열흘에 한 가지씩 일을 보고토록 하여, 고조 및 그 총신들의 언행을 감시하였는데, 많은 이들이 모두 명령에 따라 실행했으며, 어떤 이는 심지어 없는 일을 만들기까지 하여 태후의 마음을 사기 위해 임금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 시켰다. 그러나 양씨 형제는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통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태후의 명령에 대해 겉으로는 받드는 척하면서도 실재로는 명을 따르지 않았다. 명을 따르지 않은 질책은 교묘한 말솜씨와 변명으로 넘기면서 그런 자세를 10여 년을 변함없이 유지하였다.[24]

위나라 劉廙[25]는 <戒弟緯>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무릇 교유의 아름다움은 어진 친구를 얻는 데 있으니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세상에 교유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살피지 않고 사람을 선택하며, 무리에 영합하기에만 힘을 쓰면서 성인들이 교유하던 의미를 위배하였으니, 이는 자신의 덕성을 두텁게 하고 인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내가 네 친구 魏諷을 보니, 덕행은 닦지 않고, 오로지 규합하기에만 힘쓰며, 화려하지만 내실이 없으니, 이는 단지 세상을 어지럽히고 명예를 탈취하는 것이다. 그대는 이를 신중히 하며, 함부로 그들과 왕래하지 말라.(夫交友之美, 在於得賢, 不可不詳. 而世之交者, 不審擇人, 務合黨衆, 違先聖人交友之義, 此非厚己輔仁之謂也. 吾觀魏諷, 不修德行, 而專以鳩合爲務, 華而不實, 此直攪世沽名者也. 卿愼之, 勿復與通.)(≪魏志・劉廙傳≫注引≪廙別傳≫)[26]

24) 王人恩 編著, 앞의 책, 97쪽 참조.

25) 劉廙(180~221): 삼국시대 魏나라 명사. 자가 恭嗣이며, 南陽 사람이다. 처음에는 荊州牧 劉表의 從事로 있던 형 劉望之와 함께 형주에 살았었는데, 형이 유표에게 살해되자 揚州로 도망가 曹操에게 들어가 丞相掾, 五官將文學, 黃門侍郎 등을 역임했으며, 魏나라가 건국된 후에는 侍中으로 발탁되었으며, 關內侯에 봉해졌다. 동생 劉偉의 반란자 魏諷과의 교유에 연루되어 사형에 처해졌으나 면제 받았다. 이상 維基百科, 百度百科 '劉廙'조 및 張舜徽 主編, ≪三國志辭典≫, 山東敎育出版社, 1992, 610쪽 참조.

26) 陳壽, 앞의 책, 495쪽.

www.kci.go.kr

동생이 덕행은 닦지 않고 파당 짓기에만 급급한 魏諷과 사귀는 것을 보고 염려하는 마음에 주의를 준 글이다. 그의 판단은 정확하였으니, 그의 훈계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듣지 않았으며, 마침내 建安 24년(219), 魏諷은 曹操가 關中에서 劉備와 漢中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鄴城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동생 劉偉도 참여하였다. 이에 자신도 연루되어 사형을 받게 되었으나 다행히 曹操에 의해 사면을 받게 되었다. 이를 본다면 신중하지 못한 교유가 자칫 한 집안을 순식간에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2) 避禍와 保身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화를 피하고 자신의 몸을 보전하라는 가르침은 가훈이기에 가능한 가르침이다. 가훈이 비록 표면적으로는 자제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가계의 보전과 번창에 대한 바람이 스며있다. 그렇기에 화를 피하고 몸을 보전하여 가계를 존속시킨다는 소극적인 둔세사상도 없지 않은 것이다.

중고시기 가훈 중에서 피화와 보신을 가르친 대표적 가훈으로, 서진 嵇康의 <家誡>를 들 수 있다. 글은 집안 구성원들에게 화를 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훈의 목적 역시 대의명분보다는 가계의 존속을 바라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벼슬아치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다.

> 살고 있는 지방의 관리는 다만 마땅히 공경할 뿐이다. 너무 친밀해서는 안 되며, 자주 내왕해서도 안 되며, 갈 때는 마땅히 알맞은 때가 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또한 하룻밤 묵어서도 안 된다. 그 이유는 관리는 외부의 일을 묻기 좋아하며, 때로는 수시로 사건을 일으키니, 어떤 사람이 남의 이야기를 말했다고 원망하게 되어 스스로 그 화를 면할 수가 없게 된다. 말을 줄이며 삼가 스스로를 지키면 원망과 책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所居長吏, 但宜敬之而已矣. 不當極親密, 不宜數往, 往當有時. 其有衆人, 又不當宿留. 所以然者, 長吏喜問外事, 或時發舉, 則怨或者謂人所說,

www.kci.go.kr

無以自免也. 若行寡言, 愼備自守, 則怨責之路解矣.)

특히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의 벼슬아치와는 공경하게 대할 뿐 너무 친밀해서 안되며, 친하게 지내다 남의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 화를 당하게 되니, 출입과 언행에 신중해야만 화를 면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청탁에 대한 대처법을 말한 부분이다.

> 만약 궁핍하여 마땅히 구휼해야 할 사람을 보면 너는 의로움을 보여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와 나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먼저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에게 주었을 경우에 손해되는 것이 지금보다 많게 되어 구휼해주는 의로운 명분이 적다면 그 경중을 헤아려 거절한다. 설령 도와주지 않아 모욕을 끊임없이 받는다 하더라도 그에게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요청하는 대개의 경우에 저들은 없고 나는 있기에 와서 요청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 그에게 주는 것이 좋다.(若見窮乏而有可以賑濟者, 便見義而作. 若人從我, 欲有所求, 先自思省, 若有所損廢, 多於今日, 所濟之義少, 則當權其輕重而拒之. 雖復守辱不已, 猶當絶之. 然大率人之告求, 皆彼無我有, 故來求我, 此爲與之多也.)

남에게 물질적인 도움 요청을 받았을 때도 무턱대고 호기를 부릴 것이 아니라, 도움의 명분과 손익을 충분히 헤아려보고 도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무작정 도와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뜻이며,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다음은 타인의 시비에 휩쓸려들지 말라고 한 부분이다.

> 또 세속 사람들은 좋은 일을 전할 때는 더디고 나쁜 일을 전할 때는 빠르며, 또 남의 잘못을 따지기를 좋아하는데, 이는 보통사람의 관점이다. 좌중에서 하는 말은 당연히 고상한 의론이 아니다. 단지 동정이나 뉴스 등으로, 그들 사이엔 사소한 차이가 있으니, 다만 높은 시선에서 바라보며 맞장구 칠 필요는 없다. 옳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말며, 평온하고 조용하게 도리를 공경히 따르는 것이 어찌 후회를 줄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서

www.kci.go.kr

로 다툼으로 변하게 되면 득실의 소재도 모르게 되니 제발 이런 것에 끼어들지 말거라. 잠시 침묵하며 그들을 관찰하면 잘잘못이 저절로 보이게 될 것이다. 때로는 작은 옳음이 완전히 옳지 않을 때도 있고, 작은 잘못이 완전한 잘못이 아닐 때도 있으니, 결국에 가서는 말로써 그들을 응대해서는 안 된다. 설령 잘잘못을 묻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사양해야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且俗人傳吉遲傳凶疾, 又好議人之過闕, 此常人之議也. 坐中所言, 自非高議, 但是動靜消息, 小小異同, 但當高視, 不足和答也. 非義不言, 詳靜敬道, 豈非寡悔之謂? 人有相與變爭, 未知得失所在, 愼勿豫也. 且默以觀之, 其是非行自可見. 或有小是不足是, 小非不足非, 至竟可不言以待之. 就有人問者, 猶當辭以不解.)

처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말임을 전제하고, 입을 잘못 놀리면 화를 초래하게 됨을 여러모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나아가 일반적인 자리에서의 시비도 이러할진대 술자리, 취중의 시비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가르쳤다.[27]

이는 그가 속했던 죽림칠현 인사들의 껄끄러운 세상사에 대처하는 어쩔 수 없는 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얼마 이상의 값이 나가는 선물은 절대로 받지 말라고 경고했다.

27) 만약 술자리에서 사람들이 언쟁하다가 그 기세가 점차 성대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속히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데, 이는 몸싸움의 전조이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 앉은 채 구경하다 보면 필시 잘잘못을 보게 되고, 그러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말을 하게 되면 필시 한 사람이 옳다고 하게 되니, 옳지 못한 사람도 바야흐로 스스로는 올바르다고 여기게 될 것이며, 오히려 내가 저 사람에게 사사로이 친한 바가 있다고 곡해를 하면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게 마련이다. 때로는 인륜에 어긋난 욕설을 듣게 되는데, 앉은 채 그것을 구경하다 보면 시비가 확연히 갈리어 다투지 않을 수 없게 되니, 어진 사람으로서 싸움이 없다면 정의상 옳지 못하니, 마땅히 그런 경우에서 멀리 벗어나야 한다.(若會酒坐, 見人爭語, 其形勢似欲轉盛, 便當亟舍去之, 此將鬪之兆也. 坐視必見曲直, 黨不能不有言, 有言必是在一人, 其不是者方自謂爲直, 則謂曲我者有私於彼, 便怨惡之情生矣! 或便獲悖辱之言, 正坐視之, 大見是非而爭不了, 則仁而無武, 於義無可, 當遠之也.)

www.kci.go.kr

> 한 필이나 되는 비단을 선물로 주거나 수레의 장신구를 증여한다면 단연코 거절해야 한다. 왜인가? 보통 사람은 의리를 깔보고 이익을 중요시하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은 뭔가 있어서 하는 것이니, 재물을 팔아서 뇌물을 주는 것은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요, 베푸는 것은 보답을 바라서이다. 이는 속인들이 기꺼이 원하는 것이나 군자가 크게 미워하는 것이다.(匹帛之饋, 車服之贈, 當深絕之. 何者? 常人皆薄義而重利, 今以自竭者, 必有爲而作. 鬻貨徼歡, 施而求報, 其俗人之所甘願, 而君子之所大惡也.)

뇌물의 속성과 뇌물을 주는 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혜안이라고 할 수 있다. 뇌물의 덫에 걸려들지 말라고 했다.

처세함에 언행을 신중히 하여 화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신의 몸을 잘 보전하여 가계가 존속할 수 있도록 하라는 가르침은 난세의 중고시기 가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Ⅲ. 中古시기 家訓의 특징

앞에서 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중고시기 가훈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기본적 덕목인 수신을 강조하고 있다.

난세기와 치세기를 막론하고 수신에 대한 가르침은 가훈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시대에 따라 다를 수가 없다. 수신의 방법은 대체로 유가를 기본으로 삼는다. 삶의 목표를 원대하게 세우고 착한 덕성을 닦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지런히 공부하라는 가르침이 중고시기 가훈의 기본적 가르침이다.

서진 죽림칠현 한 사람으로 노장사상에 경도되었던 嵇康 역시 자식을 가르칠 때는 입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www.kci.go.kr

> 사람으로서 심지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군자는 심지를 쓸 때 준칙으로 삼는 바가 있어서, 스스로 그 선한 것을 헤아리고 반드시 숙고한 뒤에 행동해야 한다. 만약 마음으로 하고 싶은 것이라면 입과 마음으로 맹세하고 죽어도 어기지 않고, 자신이 그것을 이루지 못함을 치욕으로 여기고, 반드시 성공시킬 것을 기약한다. …… 또한 申胥의 오랫동안의 흐느낌, 伯夷 叔齊의 완전한 결백, 柳下惠의 신의, 蘇武의 절개는 가히 확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욕심없이 지조를 지키며, 편안하게 그것을 실천하여 마치 자연스러운 것 같으니, 이것이 바로 지조를 훌륭하게 지킨 사람들인 것이다.(人無志, 非人也. 但君子用心, 有所准行, 自當量其善者, 必擬議而後動. 若志之所之, 則口與心誓, 守死無二, 恥躬不逮, 期於必濟. …… 若夫申胥之長吟, 夷齊之全潔, 展季之執信, 蘇武之守節, 可謂固矣! 故以無心守之, 安而體之, 若自然也. 乃是守志之盛者也.)

嵇康은 위진 교체기라는 험악한 정치환경의 권력투쟁의 희생자였다. 사상적 측면에서 볼 때 그는 스스로 밝힌 것처럼 노장사상에 치우쳐 "또한 매번 湯王과 武王을 비난하고 周公과 孔子조차도 경시한"[28] 반유가적 인물이다. 그러한 그 역시 자제들을 가르치는 가훈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신과 입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가훈 문장이 지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처세의 태도에 있어 화를 피하며 몸을 보전하라는 가르침이다.

이는 특히 난세기이기에 가능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다. 생명은 고귀하다. 생명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생명보다 더한 명분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선악, 정의와 불의의 개념이 불분명한 난세기에서는 자기 몸을 희생할 만한 명분을 찾기가 어렵다. 때문에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삼국시대 吳의 張紘은 병석에서 난세에 처한 자신의 오랜 벼슬생활에 대한 경험을 총괄한 지혜를 아들에게 전해주었다. 즉 역대로 임금은 덕정

28) <與山巨源絶交書>: "又每非湯武而薄周孔." 明 張溥 編, ≪漢魏六朝百三名家集≫(제2권 ≪嵇中散集≫), 文津出版社, 1979, 1359쪽.

www.kci.go.kr

을 이루고자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이유는 “어려움을 꺼려하고 쉬운 쪽으로 나아가며, 자신과 같은 유의 사람을 좋아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마련이기”(憚難而趣易, 好同而惡異, 與治道相反.) 때문이며, 나아가 임금은 “마음에 드는 같은 부류의 신하들에게 빠져서 다른 사람을 등용할 겨를이 없는데다, 충신은 군주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책을 끼고서 귀에 거슬리는 말을 토해내니 그것이 임금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甘易同之歡, 無假取於人, 而忠臣挾難進之術, 吐逆耳之言, 其不合也.)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때문에 아들에게 간곡히 “이런 점을 재삼 생각하라.”(宜加三思)고 한 것이다. 결국 張紘의 글은 난세에 처한 벼슬아치로서 군주의 이러한 속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잘못된 길로 가서 몸을 망치고 가계를 단절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생명을 손상시키는 일은 당하지 않아야 하며, 그것은 개인의 생명 유지라는 의의보다 나아가 가계의 존속이라는 의의를 지니기 때문에 중고시기 가훈의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게 되었다. 중고시기 가훈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중함에 대한 강조 역시 화를 면하게 하는 공인된 가장 유효한 처방전이었다. 신중함은 언행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교유하는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적용되었다.

셋째, 멸사봉공의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가르치는 내용이 거의 없다.

중고시기 역사의 특징 중의 하나로 왕조의 잦은 교체를 들 수 있다. 그로 인해 전통적인 유가의 덕목인 나라[임금]에 대한 충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나라는 혁명, 권력투쟁, 전쟁 등에 의해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그때마다 ‘不事二君’의 덕목을 지키자면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래서 중고시기 사인들은 왕조의 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며, 오로지 가문의 번창과 영속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것은 전해오는 사서의 내용으로도 증명이 된다. 즉 중고시기 대부분의 사서에는 다른 시기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던 충의전이 아예 없다. 대신에 가족 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인 효에 대한 효의전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풍조 때문에 가훈에도 역시 나라[임

www.kci.go.kr

금]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대신 북위 楊春의 경우처럼 비록 임금의 뜻을 거스르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을 택하기를 가르치게 된 것이다. 나라[임금]에 대한 충성은 이후, 중고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치세기로 볼 수 있는 당송시기가 되면 가훈에도 등장하게 된다.[29]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라는 가르침이나, 임금에게 죽음으로 충성하는 것이 오히려 조상들에게 효도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은 분명히 중고시기 가훈의 가르침과는 다르다.

Ⅳ. 끝내는 말

생명은 유한하다. 그러나 유한한 생명은 자식을 통해 영속성을 지니며 무상함을 극복한다. 가훈은 바로 자신의 생명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도 있다. 생명의 무상함에 대한 체감은 난세기일수록 더하며, 난세기 중고시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본고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훈을 통해 자식들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다.

중고시기 가훈의 내용은 간단히 기본적인 수신의 도리를 다하여 올바른 한 인간으로서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가문을 영

29) 唐 元稹(779~831)의 <誨侄等書>: "너희들 또한 보다시피 내가 감찰어사가 된 뒤에, 직분을 다했고 재난을 피하려는 마음이 없었고 일에 임해서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였다. 이를 알겠느냐? …… 다행히도 내 목숨이 떨어지지 않아, 다시 관모를 쓰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늘 '임금 앞에서 죽음으로써 최선을 다하고 후세에 명성을 날려야만 죽은 다음에 지하에서 조상들에게 사죄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되새겨본다."(汝等又見吾自禦史來, 效職無避禍之心, 臨事有致命之志, 尙知之乎? …… 幸餘命不殞, 重戴冠纓, 常誓效死君前, 揚名後代, 歿有以謝先人於地下耳.) 宋 歐陽脩(1007~1072)의 <與十二姪>: "지금 일이 많은 때를 맞이하여 만약 네가 복무할 일이 있다면 온 마음을 다해 밀고 나가야지 일을 피해서는 안 된다. 재난에 임하여 절개를 지켜 죽은 일 또한 너의 영광스런 일일 것이다."(偶此多事, 如有差使, 盡心向前, 不得避事. 至於臨難死節, 亦是汝榮事.) 김종섭 편역, ≪아들딸에게 전해주는 삶의 지혜≫, 솔출판사, 1997, 67쪽, 72쪽.

www.kci.go.kr

속시켜 나가기를 바란 것이다. 가훈은 결코 지식의 가르침이 아니라, 어떻게 완성된 인간으로서 험난한 세상을 순조롭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수신과 처세에 대한 가르침이다.

비록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사회가 중국의 중고시기와 같은 혼란한 시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부형들이 가훈을 통해 자제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가정교육의 정신만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가정의 안정이 그 사회의 안정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參考文獻>

김종섭 편역, ≪아들딸에게 전해주는 삶의 지혜≫, 솔출판사, 1997.
王新龍 編著, ≪中華家訓≫(全4冊), 中國戲劇出版社, 2009.
張艷國 編, ≪家訓輯覽≫, 武漢大學出版社, 2007.
盧正言 主編, ≪中國歷代家訓觀止≫, 上海世紀出版, 2004.
徐少錦, ≪中國家訓史≫, 陝西人民出版社, 2003.
謝寶耿, ≪中國家訓精華≫,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7.
朱明勳, ≪中國家訓史論考≫, 巴蜀書社, 2008.
王人恩 編著, ≪古代家訓精華≫, 甘肅敎育出版社, 2001.
乙力 編, ≪中國古代聖賢家訓≫, 蘭州大學出版社, 2004.
明 張溥 編, ≪漢魏六朝百三名家集≫(제2권 ≪嵇中散集≫, 제4권 ≪顔光祿集≫), 文津出版社, 1979.
李志剛, ≪歷代帝王家訓≫, 新世界出版社, 2007.
成曉軍, ≪帝王家訓≫, 湖北人民出版社, 1994.
徐寒 主編, ≪中華傳世家訓≫(上下), 中國書店, 2010.
顔之推 著, 임동석 역주, ≪안씨가훈≫, 고즈윈, 2004.
張舜徽 主編, ≪三國志辭典≫, 山東敎育出版社, 1992.

www.kci.go.kr

上海書店 編, ≪二十五史≫(全12冊), 上海古籍出版社, 1992.
朱熹 注, ≪四書集注≫, 北京古籍出版社, 2000.
汪受寬 譯注, ≪孝經譯注≫, 上海古籍出版社, 2007.
(日) 竹內照夫 著, 新釋漢文大系28, ≪禮記≫(中), 明治書院.
楊伯峻 著, ≪春秋左傳注≫(下), 源流文化事業公司, 1982.
祝敏徹 等 譯注, ≪詩經譯注≫, 甘肅人民出版社, 1984.
黃壽祺 等 撰, ≪周易譯注≫(修訂本), 上海古籍出版社, 2001.
陳壽 撰, 宋 裴松之 注, ≪三國志≫(上), 岳麓書社, 1990.
張舜徽 主編, ≪三國志辭典≫, 山東敎育出版社, 1992.
王瑤, ≪中古文學史論≫, 長安出版社, 1982.
胡大雷, ≪中古詩人抒情方式的演進≫, 中華書局, 2003.
閻續瑞, <漢代士大夫家訓簡論>, ≪求索≫, 2006.
程時用, <試析中國古代帝王家訓>, ≪湖南行政學院學報≫, 2009, 第4期.
王學, <中國古代家訓的價值取向初探>, ≪湖南師範大學敎育科學學報≫, 2005, 第4卷 第1期.
胡栩鴻, <從≪顔氏家訓≫看南北朝時期士大夫的價值取向>, ≪湖北第二師範學院學報≫, 2008, 第25卷 第11期.
任穎梔, <鄭玄與≪戒子益恩書≫>, ≪齊魯學刊≫, 2008, 第2期.
黃小妹·陸學莉, <漢代家訓文學的成就及其對後世的影響>, ≪南京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9, 第22卷 第4期.

<中文提要>

家訓是某一家庭中父兄要求,訓戒子弟立身處世的行爲規則, 又是隨着家庭的産生而出現的一種敎育形式. 中古時期, 卽漢末魏晉南北朝時期爲亂世. 面對動蕩的社會, 黑暗的政治, 士人們開始思考如何使子孫安身立命, 建功立業的問題. 於是它産生了許多家訓名篇.

www.kci.go.kr

中古時期家訓的內容大分爲三，卽修身，齊家和處世.

修身是基礎，是根本. 所謂修身，卽修養身心，亦卽培養優良的道德品質. 修身可分爲遠大的立志，德性的培養和讀書勉學. 立志可以說人生的目標. 所以歷代家訓中，鼓勵子女從小樹立遠大志向的，不論時期，爲數不少. 因爲許多家訓作者，都把立志看成是人生的第一大事，走向成功的第一步. 一立遠大的志， 就應該努力培養優良的德性. 所以歷代家訓都注重對子孫德性的培養，中古時期的家訓也不例外. 如果立志是目的. 讀書勉學是手段. 立身處世，而要成就大業，需要讀書勉學.

如果說修身是立身之本，齊家是立身之始. 孝悌是齊家之道的核心. 其中‘孝’是對父母，祖先的敬愛， 在封建社會里， 父母與子女的縱的關係在家庭中具有十分重要的地位. ‘悌’是對兄長的順從，和‘孝’一樣，也是做人之根本. 兄弟的友好團結，相互關心，對家庭的和睦和興旺，也有重要影響.

處世的道理是謹愼，避禍和保身. 謹愼可分爲愼言語和愼交友. 禍從口出，要避禍需要謹愼言語. 人的品性可以變好，也可以變壞，其關鍵在於接近善人而遠離不善人，所以在處世上不可不謹愼交友. 避禍和保身是不爲國家，而爲家庭的敎訓，也是中古時期家訓的重要內容. 它具有産生於亂世的特點.

주제어 : 中古時期，家訓，修身，齊家，處世，避禍，保身

www.kci.go.kr